

「捜査權 調整」 문제 언제 해결될 것인가? — ②

—— 김 연 수 (前 총경, 搜友會 총무)



그런가 하면 법무부는 향후 4년 동안에 격증하는 범죄인 교화 및 시설관리요원 등 고정직 공무원을 무려 8,000명이나 증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호 관찰제도와 같은 다이버전계획은 국민을 위하고 나라의 장래를 위한 것 이라기보다는 다분히 일부 범조인 기득권 보호를 위해 철저히 의도된 제도이다. 형사사법절차를 받지 않고 평소 잘 감시만 하거나 또는 내 주변에는 항상 감시의 눈이 지키고 있다는 주의만 있어도 재범하지 않고 재생활 수 있는 범법자를 상대로, 경찰에서 조사한 후 검찰의 재조사와 영장신청을 통하여 법관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일단 구속을 해 놓고 상당기간 애타는 절박한 가족 등을 상대로 변호사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밀고 당기고 하다가 급세기 들어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막대한 고위직 보호관찰관 제도를 신설하여 일종의 감시기능인 보호관찰 조건하에 선심성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기소유예 포함) 등으로 풀어주면서 이 장기간의 투쟁과정을 통하여 어려운 국민으로 하여금 변호사 소송비 명목으로 막대한 사적비용을 지불(강요?)하게 하여 일부 법조계를 보호해주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의 Diversion제도는 대부분의 사건은 범인을 검거한 경찰에서 주변 환경 등 개인 신상문제 등을 즉시 확인하여 애당초 형사사법절차에 회부할 것인지 아니면 다이버전계획으로 그 이전 단계에서 마무리 할 것인지를 바로 결정하여야 한다. 물론 형사사법절차에 회부하여야 할 사항은 지금과 같이 처리하면 된다.

기소 독점주의가 필요했던 시기는 중세이후 근세에 들어와 절대적 왕권으로부터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 때문에 대두된 제도이다. 당시의 상황 하에서는 그것이 최선이고 질박했던 제도이나 지금에 와서는 송사리까지 한걸음 물물어 해서 통과하게 해 놓고 통행로 강제 징수하는 식이 되어버렸고 이후 사실상의 감시 부재로 오히려 범죄요령만 답습하게 된다.

그러나 경찰에서 다이버전 처리된 자는 신속하게 처리될 뿐만 아니라 범죄예방 조직인 경찰 책임하에 감시하게 되므로 인권문제가 제기되지 않으면서 재범을 할 수가 없게 된다.

지금의 경찰 실력으로는 안 된다고 우려하는 측도 있겠지만 의도적으로 하향 조직된 경찰직급을 타 기능과 같이 정상으로 끌어올리면 자연 해결되고 변호사라는 자유 직업인으로 풀어놓고 보호타널을 만들어 줄 것이 아니라 이들을 제도권으로 흡수하여 경찰서에 다이버전심의관(혹은 보호관찰심의관)으로 활용하면 국민의 사적 부담은 몇 십분지 일로 줄고 법조인도 안정적 직업을 갖게 되므로 오히려 보호 된다.

나는 경찰에서 그 짧은 기간동안에 구속 송치한 범인을 공소제기 하여 일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자가 항소심에서 무죄판결 되는 사건이 일어날 때 마다 경찰이 무고한자를 범인으로 몰아놓고 언론매체에서 특종기사로 비난 보도 방송하는 것을 보면 사회의 목탁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일단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는 경찰이 무식하고 잘 못했다고 경찰을 비난할 성질이 아니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는데 왜 경찰을 비난하는지, 그럴 때마다 한 사람의 형사 능력을 공소제기권자 또는 법관 수준의 전문가를 요구하면서서도 막상 경찰업무에 상응한 처우 문제제기만 되면 필사적으로

갈맞는 대우는 고사하고 필사적으로 격하하려고 드는지 그것이 결과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이고 국민에게 얼마나 더 고통이 가는 것인지를 왜 한번쯤은 검토조차 하지 않는가 하고 안타깝기 그지 없다.

또 한 가지 일정한 금액 이하의 벌금제도는 과감하게 행정벌로 Diversion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는 사법개혁 차원에서 과감히 접근하여야 한다.

○ 現行 保護觀察 制度와 檢察의 搜查指揮權은 函數關係

경찰권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통치권에 의거하여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권능이다. 경찰관집무집행법에 경찰의 임무로서 범죄의 예방과 진압 및 수사, 그리고 치안정보의 수집이 명시되어 있고 범죄의 예방과 치안정보수집을 위해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 개인 명예에 상처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감시적 기능이 행해져야 가능하다.

경찰권의 정당한 행사가 보호되어야 사회질서가 확립된다

20세기 말기 세계의 형사정책 방향이 범죄예방에 최우선으로 치닫고 있을 지음 우리 나라는 1996년도부터 보호관찰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런데 범죄인의 범인성 특성을 치료하고 교화하던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었다.

지금의 보호관찰은 무력화에 의한 범죄기회 제거의 의미를 갖는 것인지 개인을 교화해서 재 사회화한다는 것은 이미 실효성이 없다고 폐기해 가고 있는 제도이다. 날이 갈수록 재범 3범 4범 등 누범률이 늘어 가고만 있다는 것이 이를 실증하는 자료이다.

격식에 따른 사회규범의 내면화 교육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억지효과에 중점을 두고 기간 중 또는 그 이후라도 상당기간 범죄자가 진심으로 자성하고 긍정적 가치규범을 내재화 하는지를 관찰 감시하여야 하는 것이다. 주소지와 활동거점의 관찰 경찰서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평소 경찰활동을 통하여 계속 감시하게 되면 나의 감시자가 현재와 같은 보호관찰관 단 한 사람이 아니고 전국의 어디에나 서있는 경찰관이라는 주의관념을 잊지 않게 되므로서 진정한 억지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범죄예방이라면 당연히 경찰이 하여야 할 임무가 아닌가 말이다.

극히 일부 극소수 특정 범죄인에 대한 전제조의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의 전방(규칙 10조)인 양 해당기능을 확대하고 전체 범죄예방을 기본으로 하는 경찰조직보다 직급을 훨씬 높이고 하는 것 등은 수사지휘권과 바로 함수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법 개정시 경찰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 搜查指揮權이 特定階層의 既得權 保護障壁이 될 수없다

수사권 조정문제로 지난 1년간 경찰과 경찰이 자기 나름대로의

목소리를 내며 중국에 가서는 밭고름 싸움 권한쟁의 라는 비난까지 나오다가 소강상태로 돌아가 휴화산이 되었다.

수사권 조정문제는 기득권의 방어나 새로운 권한의 쟁취문제가 되어서는 안되고 순수한 사회문제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1인당 년 소득 2억 5천만이하의 변호사는 변호사회에 가입한다고 한다. 7,200명의 변호사 역대 소득을 위해 국민이 지불하여야 하는 연간 비용은 암수비용을 포함하여 수조대에 이를 것이다.

특정계층 보호를 위해 계속 고집할 것이 아니라 열악한 시민을 보호하고 범법자 처우를 위해 소모되는 사법 비용도 줄이면서 효과적인 범죄기회 제거 활동에 전 경찰력을 집중시킨다면 국민의 지출 요인이 없어져 소득은 상대적으로 늘고 국민의 박탈감과 불안과 공포심은 해소되고 특히 피해자 없는 단순범죄 기타 재범 우려 없는 범죄자들은 장기 사법절차를 겪는 동안 받는 과도한 불안으로부터 해방되는 등 이것이 진정한 소망스런 사회가 아닌가 한다. 법조계 보호는 국민을 인질로 할 것이 아니라 드넓은 미래

척지 새로운 업무를 찾는 방법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 이제는 犯罪搜查도 警察이 獨自 責任 遂行할 時代

우리나라도 이제는 세계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끄럼 없는 국가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범죄수사에 대한 검찰수사지휘권만은 유례없는 경직성이 유지되고 형사법 제정당시인 1950년도 전반 보다 오히려 더 강화되었다. 수사에 관한 한 온전한 의사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경찰이 거의 자체적으로 범죄수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는 수사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사지휘라는 통제를 벗어나면 무조건 인권이 마구 짓 밟힌다는 고정관념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다. 이것은 한국사회가 그 동안 많지 않은 법조계 층에 의해 주도돼 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경찰의 권한 강화는 국민의 기본권보호와 반비례하고 경찰에 대한 통제강화는 기본권 보호와 정비례라는 것은 등식이 아니다. 경찰권의 정당한 행사가 보호되어야 범죄자가 사고 범죄자가 서야 사회질서가 확립된다. 그래야만 범죄가 잠잠해 진다. 아무 죄 없는 최일선 경찰관서인 파출소에 일반시민이 포크레인을 가지고 와서 죄의식 없이 공공연히 파출소시설을 부수는 현상은 사회가 해체되어 규범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독자 수사권이 있다면 과연 그런 해괴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수사 자주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범죄자가 매우 확립된 미국 경찰에서는 20세기 말 한국경찰의 예방경찰활동을 벤치마킹하여 현재 각광받는 "Community Policing"으로 제도화 하고 있다.

18세기 죄형법정주의가 형사정책에 새 지평을 연 것과 맞먹을 만한 다이버전제도도 받아들여야 할 시점에 아직까지 남은 시대의 유물인 수사지휘권 장벽을 더 높이 쌓기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수사는 수사하는 사람에게 맡기고 현실은 현실대로 인정해야 한다.

비 법조 민간인 배심원 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시기가 왔고, 비 수사기관인 행정기관에서는 역대 또는 수천만원씩 하는 행정벌을 과하고 있는 이때, 아직까지 수사권을 독점하고 다이버전계획을 검찰이 전횡하겠다는 것은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처사라 본다.

○ 制度改革과 警察의 課題

검찰은 경찰의 수사권 독립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예상하고 80년대 신 군부에 의거 정부창출 당시 헌법을 개정하면서 사회 각계의 의견수렴 없이 현직 검찰 중심으로 헌법을 개정 하므로써 검찰의 경찰노예화 제도 영구화를 고착 시켰고, 90년대 보호관찰 제도 도입 형법 개정시 법조 기득권 수호를 위해 한층 더 견고한 장벽을 쌓았다.

경찰은 앞으로 자율 범죄수사권 행사의 시대를 눈앞에 놓고 하루빨리 대응 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다음 두 가지는 수사권 조정의 선행조건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최소한 분리 불가한 같은 맥락이다.

가. 警察官職格의 向上 調整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은 자신이 최하 7급 평균 6급의 수준이라고 자부한다. 공무원 최 말단 직급과 같은 경찰관(순경)으로부터 인권의 재단을 받기를 거부한다. 9급의 경찰관으로부터 법집행을 당하면 보호를 받는다는 안도가 아니라 갈등을 느낄 뿐이다. 보조기관이 아니고 현장에서 즉석 판단 집행하는 공무원의 직급을 9급으로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기본권 침해 위험성이 높고 업무의 고난도, 공소제기 수준의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사회문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행정기관과의 형평과 관계없이 경찰관의 직급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야 한다. "왜 한번 받은 조사를 검사로부터 다시 받고 싶은가" 라는 질문에 87.4%가 "기왕이면 높은 사람에게 받고 싶어서"라는 답이 국민은 바로 그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로부터 법집행을 받으면 7급인 자기가 9급으로 하락된 기분이 들고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으면 처벌을 받아도 3급 수준으로 격상된 느낌이 드는 것이 한국인의 정서다. 경찰관의 활동은 국가활동이고 그는 국민을 편하게 해야지 갈등을 조정해서는 안되지 않은가?

검찰과 대비 최하위 계급 7~6급으로 (검찰관 최하 3급), 청장: 장관급(군대장, 검찰총장)으로 격상 그러면 경찰서마다 사시출신 보호관찰 심의관을 두는데 걸림돌이 없을 것이다.

나. 報酬體系 再調整 및 退職後 生活安全網 講究

- 경찰 상위직에 대한 공안직 보수해택 부여와 전 경찰관 퇴직 후 대비 경찰공제 제도 확충
- 경사급 군 준위계급 상응 4급까지 직급 인상으로 시행 유보

중인 경위급 자동승진 문제 해결

(끝)

기행문

힌두교의 나라 인도를 다녀와서!

—— 황 호 향 (前 경우회 사무총장)



국가를 다녀 보았는데 인도를 가면 고생스럽다는 말에 억눌려 미루고 또 미루다가 이번에서야 처와 같이 여행사에 끼어 인도 여행을 다녀왔다.

2006년 3월 17일 13:30분 인도 항공 비행기로 출발하도록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시간이 늦게 출발하게 되어, 첫날부터 시간을 지키지 않는 인도라는 말들이 맞아 떨어지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비행기는 홍콩 비행장에 도착한 후 1시간 반가량 국내에서 대기했다가 출발하여 목적이인 봄베이에는 다음날 2시경에 도착했다.

(우리나라와 인도의 시간차는 3시간 30분가량임.)

이곳 봄베이에서 우리들을 마중나온, 서둘러 우리말을 하는 인도인 가이드(안내원)를 만났다. 라 메국제호텔에 숙소를 정했다.

다음날 아침 조식후 전용버스를 이용하여 봄베이 관광에 나섰다.

시내관광을 향해 버스는 자전거, 세발차, 세발자전거, 세발택시, 택시, 화물차, 노점상, 사람, 소, 염소, 말, 코끼리 등이 어우러진 길을 요행스럽게 곡예 운전을 하며 잘도 빠져 나가고 있었다. 또한

도로가 비포장된 곳이 대부분이어서, 우리나라에서 1시간정도 소요되는 거리가 인도에서는 약 3시간가량 소요된다고 했다.

시내에서 멀지 않은 곳에 집단 빨래터(도비가트)가 있다. 이곳을 인도 봄베이에에서만 볼 수 있는 공동 빨래터로 빨래를 전문으로 하는 공동 작업장이다.

인도가 자랑하는 또 다른 유물인 아진타 동굴군은 BC 2세기에서 7세기 까지에 걸쳐 형성되어진 것들이다. 29개의 아진타 동굴군은 뒤를 이어 이루어진 엘로라의 것과는 달리 모두 불교 동굴로서 동굴안을 장식하고 있는 생동감 넘치는 벽화들이 몇 번을 보아도 놀랍도록 아름답다. 부사월역에서 바라나시에 가기 위해 침대 기차를 탔다.

기차는 18시간이란 긴 시간을 타야하는 침대차인데 한 칸에 6명이 누워서 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담요와 베개를 주어 아쉬운대로 누워자면서 왔다.

기차는 연착하여 20여시간만에 인도 최고의 종교 도시인 바라나시에 도착했다.

빨간 조끼를 입은 직원들이 달려들어 짐을 날라주었다.

이빈의 20여시간에 걸친 기차여행은 인도의 고원지대를 통과하고 전원지대의 모습을 보면서 일생 처음으로 장거리 기차여행 경험을 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기차내에서 먹은 도시락은 도저히 먹기 힘들어 먹을 수가 없었다.

집에서 갖고 간 접라면으로 대신했다.

바라나시에서는 초전복아원, 사르나트박물관, 스리랑가 사원 등을 관람하고 클라크스투어호텔에서 숙식했다. 다음날 이른 아침인 05:30에 기상하여 일출을 감상하기 위해 갠지스강으로 향했다.

목적지인 갠지스강에 거의 도착할 무렵부터 거지떼들이 달라붙고, 길가에는 거적을 쓰고 지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보였다. 현지에 도착하니 많은 관광객들이 일출상황을 보기 위하여 모여들었다. 버스에서 하차하여 부두 현장까지 가는 길가에는 거지들이 달려들어 걸어가기도 짜자 힘들게였다. 특히 팔, 다리등이 없는 불구자 거지들이 많았다.

소형 보트를 타고 해돋이도 보고, 옆 언덕 화상터에서 화장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 이곳은 순례자들과 각국에서 모여든 관광객들로 대혼잡을 이루고 있는 곳이다.

오늘도 100여대가 넘는 크고 작은 보트를 탄 관광객이 근처 일대의 갠지스강을 떠다니며 일출과 화장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

이곳은 힌두교도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신성한 성지로 알려져 있는 곳이다.

또 이곳 한쪽 강가에는 화장터가 있어 시신을 태우는 연기에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코를 막게 하고 있으며, 옅은 천으로 둘둘 감은 시신을 대나무로 사다닥치처럼 엮어 만들어 들것에 메고 와서 강물에 세 번 적신 다음 장작더미위에 놓아 태운다.

흰옷을 입은 상주는 불씨를 붙여 들고 몇바퀴 시신을 돈 다음 불을 붙인다. 강변 곳곳에서 이런

화장이 행해지고 있고 상주는 긴 장대를 갖고 시신이 골고루 타도록 연방 뒤적이고 있다. 곁에는 개가 어슬렁거리다가 타다 남은 시신 토막을 물고 가도 상주는 못 본체 한다. 타다 남은 재와 빠는 강물에 흘려 내려 보낸다.

바라나시에서 전용차로 출발하여 알라하바드에 도착했다. 갠지스강과 야무나강이 만나는 삼각지구와 네루일가의 가족 사원인 아난디비만을 관람한 후 8시간만에 카주라호에 도착했다. 카주라호에 도착하여 클라크스카주라호 호텔에 체크인하고 인도의 전통춤인 "까따춤"을 감상하고 인도의 전통요가 교습도 받았다.

카주라호는 인도의 유적지 가운데 가장 예로되한 조각 건물로 유명하다.

힌두사원의 외벽에 조각된 희한하고 대담한 수많은 남녀교합상(남녀성교장면)을 보고 놀라운 마음 금할 수가 없었다.

우리가 그림 엽서를 통하여 건성으로 보아왔던 아그라라의 타지마할 앞에 마주서니 참으로 우아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에 매혹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건물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문화재이기도 하다. 타지마할은 사람이 살기 위한 건물도 아니고 신을 모신 곳도 아니며 무굴제국의 황제가 오직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앞에 바친 묘소라니 할말이 막힌다.

이 건물은 1632년부터 22년에 걸쳐 완공했다고 하며 매일 2만명이 동원 되었다고 한다.

이 무덤 건축물은 왕비가 1631년에 열네번째 아이를 낳다가 죽으면서 "저를 위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덤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남편에게 유언을 했는데,

이 유언에 따라 지은 건물이라고 한다.

자이푸스 출입이 통제되어 있던 왕족 여인들이 이곳에서 시내를 구경하고 시가지에서 벌어지는 축제나 행진을 성안에서 볼 수 있도록 법집같은 창살로 만든 하와마할궁전(일명 바람의 궁전)과 장이성 2세가 만들었다는 천문대를 관람하고, 마

지막 호텔인 골드팔레트호텔에서 짐을 챙겨 전용차로 6시간이 소요되는 델리로 가는 도중 암베르 성을 관람했다. 이 성은 가파른 언덕위에 세워진 웅장한 위용을 보여주는 성이다. 이곳을 구경하려면 2인승 코끼리를 타고 가야만 한다.

2인승 코끼리를 타고 흥들흥들 줄을 지어 성으로 올라가는 모습은 가관이 아닐 수 없다.

16세기에 세워진 이 성은 당시 소 왕국의 수도였다. 산 능선을 따라 축조된 성벽조차도 당시 라자스탄의 주도인 자이푸르의 위용을 실감할 수 있었다. 자이푸르에서 07:00에 전용차로 출발하여 6시간만에 델리에 도착했다. 델리는 인도의 수도로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답게 대통령궁을 비롯한 각종 관공서와 공연장 등이 집중되어 있고, 크게 올드델리와 뉴델리로 나뉘어진다. 뉴델리는 인도를 통치하던 영국이 수도를 캘커타에서 이곳 델리로 옮겨와 개발한 지역으로 현대식 건물과 넓고 곧게 뻗은 길들로 연결되어 있어서 인도의 다른 도시들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게 느껴졌으며, 각국 대사관이 모여 있는 지역은 서구의 고급 주택지역과 비슷해 보였다. 뉴델리와 올드뉴델리 시내관광을 잘 꾸며진 공원이 있고 그 안에 인도문이 있다. 이 문은 높이가 42m나 되는 석조탑인데 1차 세계대전에서 전사한 9만명의 인도병사의 이름을 돌에 새겨 만든, 돌탑으로 만든 위령탑이었다. 이 거리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양옆으로 파란 잔디밭이 있고 그 너머로 국회의사당 건물과 정부 청사건물, 그리고 그 가운데로 대통령궁이 자리하고 있다.

19:00 델리 관광을 마치고 인도에서의 마지막 석식을 하고 델리공항으로 옮겨 23:15 서울행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비행기가 1시간 연착한다는 안내방송이 나왔는데, 그 시간이 되니 또 2시간 연착한다는 안내방송이 나왔다. 시간개념이 없다는 인도의 시스템이 사실임을 확인하면서 참고 기다리다가 새벽 3시 비행기로 홍콩을 거쳐 귀국했다.